



# 綠담웃담

## <녹색상품을 만나다: 물 기반으로 한 점착제 종이테이프>

#녹담 #녹색소비#녹색구매  
#친환경제품#지속가능한소비

김지영  
GCN녹색소비자연대 녹담소담 큐레이터



## 현관 앞 택배, 익숙한 테이프의 불편함을 돌아보다

'딩동' '택배 왔어요'

현관문 앞에 택배상자가 오면 상자 포장에 붙인 테이프를 떼며 접착제 냄새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분리배출과정에서 테이프를 떼어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한다는 이중과정의 번거로움을 늘 겪어왔다. 흔히 물류에 사용되는 OPP테이프인데, 플라스틱 성분이라 100년이 지나도 잘 썩지 않고,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장에 태웠다.

소비자인 나는 현재 유통 중인 종이테이프가 그나마 기존 투명한 테이프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라 생각해 아이들과 교육과정에서나 집에서 사용할 때 이용해 왔다. 그러나 녹색상품 선정과정에서 테이프의 점착 부분 성분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. 톨루엔이나 벤젠성분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. 이번에 사용해 본 종이테이프는 냄새가 없고, 유해성분이 없다는 점이 좋다.



## 녹색상품에서 만난 새로운 종이테이프의 가능성

녹색구매네트워크(GPN)의 '올해의 녹색상품'에서 만난 종이테이프는 순수종이 이형층으로 폴리에틸렌을 제거했다고 한다. 기존 유기용제 점착제와 다르게 물(H2O)을 기반으로 대체해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유해성도 막아주고, 오염방출도 0%라 했다. 점착제 성분을 물로 했다는 점이 참 놀라웠다. 이 기술력으로 해외로 뻗어나가는 녹색의 길을 상상해 본다. 친환경 패키징 세상을 열어가는 데 좋은 제품으로 판단된다.



2024 '올해의 녹색상품' 큐테이프

## 기업과 학교, 소비자의 일상에서 넓어질 녹색 전환

대형 물류업체에서 포장할 때 구매해 사용하고, 조달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면 좋겠다. 그리고 개별 소비자도 이 종이테이프를 만나면 분리배출할 때 플라스틱테이프를 떼지 않고, 종이테이프 부착된 박스를 펴서 그대로 상자코너에 내놓을 수 있어 좋다. 배출과정의 수고로움을 줄여주고, 녹색상품을 만날 수 있는 행복감까지 얻게 된다. 기업의 녹색상품에 대한 연구와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.

## 소비의 끝에 남는 쓰레기, 이제는 녹색구매가 답이다

어느새 소비자들의 물건 구매행위가 쓰레기를 배출해 내는 쓰레기생산자로 전락시켰다. 그 많은 물건들을 포장하고, 접착하며 여러 유통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. 생필품이나 먹거리 제품을 사는 행위가 지구에 해를 끼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. 뭐 하나 편하게 선택하기 어려운 시대, 지속불가능성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소비자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녹색소비, 녹색구매의 장이 활짝 열려야 할 것이다.

기업은 무조건 생산량을 늘리는게 경제성장이 아니며,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는게 경제를 잘 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.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2026년 2월 개정되었다. 이제 사회는 녹색상품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, 자원의 순환망이 잘 만들어지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다.

# 綠담笑담



전 綠담笑담 살펴보기

“  
더 좋은 소비, 더 나은 세상  
betterness consumption,  
betterness world  
”

綠담笑담